

기고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증거 기반 정책 마련 위한 데이터 공개의 중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둘러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의 논쟁은 보편복지와 정부재정의 건전성 간의 가치판단 문제이기도 했지만, 과학적 증거에 대한 논의이기도 했다.

정부 재정 문제로 인해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어렵다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지도 논쟁의 핵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두 요소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선,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란 결국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존재해야만 비로소 어떤 정책이 필요한, 또는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짚을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 정책이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존 제도와의 조응을 고려한 맥락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책의 목표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을 수반한다. 가령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이라면 현재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결국 현 수준의 불평등은 너무 높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국민의 대리인인) 정치인들의 가치판단을 기반으로 한다.

가치의 문제는 일단 차치한다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도입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는 많은 경우 다양한 통계의 형태로 우리의 눈앞에 제시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이는 수치 자체가 우리에게 단일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소득 하위 10%와 소득 상위

90%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전년 대비 불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소득 하위 20%의 소득과 소득 상위 80%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화되었다고 하자.

전자의 통계만을 확인했다면 이는 분배지표 상 긍정적인 사인이지만, 후자의 통계에 주목한다면 이는 분배지표의 약화라는 부정적인 사인으로 해석된다.

결국 소득 불평등 수준에 관한 판단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부분 이론적 시각과 해석에 기초해 현실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몫이다.

지난 10월, 통계청이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한 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통계등록부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

아놓은 통합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통계청이 가진 조사 자료에 각 부처가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갖게 된 행정 자료를 수집, 합산하여 통합된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통계청은 통계등록부의 도입 근거를 담은 통계법 개정안 제출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통계가 부처의 벽을 넘어 서로 공유되기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구축, 보관하는 허브 역할을 통계청이 수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이에 앞서 통계청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술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적으로는 증거기

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통계 자료들의 개방과 활용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통계청 홈페이지에는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며, 신뢰받는 통계생산으로, 각 경제 주체에게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이라는 기관 미션과, "국가통계 개방 및 통합 서비스 확대, 통계 자료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데이터 허브 및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계 생산·활용을 확대"하겠다는 핵심전략이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연구 목적의 자료요청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놀라운 비밀은 아니다.

정보공개청구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청구하는 일이 쉬울 리는 없다.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시스템(MDIS)을 통해 통계청 원 자료를 일반인이나 학술연구자에게 어느 정도 오픈하게 된 것도 2015년 이후의 일이다.

연구자가 원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기반

이 되며, 사실관계를 둘러싼 끝없는 당파적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은 가치를 반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증거에 기반을 둔 분석 위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숫자 그 자체가 객관적이라는 것은 사실 미신이다. 분석은 이론의 근거 위에서 더욱 탄탄해지며, 나무들에 대해 판단하면서도 숲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전체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진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데이터 수집이나 1차 가공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자료를 분석하고 이론의 기반 위에서 이를 해석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회과학자나 데이터 분석가들의 집단은 아니다.

학계는 기본적으로 같은 분야 전문가들의 동료평가(peer review) 위에서 신뢰를 구축해 온 집단이며, 잘못된 분석은 동료들에 의해 언제라도 쉽게 기각될 수 있다.

타 부처의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고 있는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료의 학술적, 정책적 활용 역시 고민해줄 것을, 오용을 고려한 비공개보다는 개방을 통한 공유 추구 및 그 무한한 가치 확장에 더 주목해 줄 것을 제안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수입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따라 각 가정마다 난방기구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취급에 따른 화재 위험성에 커지고 있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화재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대비 주택 화재는 26%, 비주택 화재는 74%를 차지한다.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주

택 화재 사망자가 62%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다. 매년 반복되는 주택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와 소방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우리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하는 일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분명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우리, 내가 사는 곳, 내가 있는 곳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바로 지금! 소화기 구입,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매를 실천으로 옮기기 바란다. 김선진/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소방교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fire, police, and emergency.

Advertisement for Honam Newspaper (호남신문)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es.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